



지은이 - 장 베르나이 푸이.
안 불랑샤르
옮긴이 - 윤미연
그림 - 세르주 블로크
펴낸곳 - 녹색지팡이

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
천재들의 어린 시절

〈세상을 뒤흔든 31인의 바보들〉

전화를 발명한 벨, 영국의 위대한 수상 처칠, 노예를 해방시킨 미국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,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무한한 꿈의 만화 세계를 열어준 월트 디즈니, 에디슨, 다빈치, 나폴레옹... 이런 이름들을 들으니 어떤 생각이 나나요? 발명가 화가 정치가 등등 우리들에게 훌륭한 문화 유산을 남겨준 분들이라는 것쯤은 잘 알고 있겠지요? 그런데 이 책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것은 이 분들의 어린 시절이 아주 평범하다 못해 어떤 이는 우리보다 훨씬 못한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2007년 볼로냐 국제 아동 도서전 라가치상을 받은 이 재미있는 책 속에서 천재들의 어린 시절을 엿보는 것 어떨까요? 책 속에서 발견한 몇몇 사람들의 말을 대신 전하면서 이들이 왜 훌륭해졌는지 짐작하게 해 줄게요.

알렉산더 그레이엄 벨 : “동생과 내가 결핵에 걸렸는데 나는 가까스로 살았지만 동생은 죽었는데 아파서 침대에 누워있을 때 우리는 둘 중에 나중에 죽는 사람이 이승에서 저승으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서 서로 연락하자고 했어.”

윈스턴 처칠 : “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지만 좋아하는 일은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바로 나야.”

에이브러햄 링컨 : “어머니는 강가나 숲 속을 함께 거닐면서 자연의 세계에 눈뜨게 해주었어 무엇보다 내 마음 속에 꿈을 심어주었어, 저녁을 먹고 나면 성경을 읽어주었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쉬지 않았지.”

월트 디즈니 : “형과 나는 매일 새벽 세 시 반에 일어나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우편함에 신문을 넣어야했어 추운 겨울 빙판 길을 무거운 신문 가방을 메고 다니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.”

나머지 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구절들은 여러분이 직접 책에서 찾아 읽어보세요!

〈글/김영숙(시인, 해오른누리기획실장)〉